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실버타운조성을 중심으로 -

김도희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요 약>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구성형태로 인해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노인주거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핵가족화 현상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접목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개발 중 실버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은 이와 관련된 새로운 행정수요를 야기시키고 있다. 고령화 사회도래와 함께 제기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노인복지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 사회현상과 가장 밀접하게 접목되는 노인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주거시설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실버타운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셋째,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 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수요를 노인복지차원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to Prepare for Aging Society -A Casestudy on Development of Silver Towns-

Kim, Do-Hee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The residential problem of elderly persons may b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curred from a new form of family structure which has appeared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itiated by the economy development plan in 1960s. Among various problems related with the welfare for elderly person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facilities dedicated to elderly persons, in which much concern has been raised due to the trend toward nuclear families and the advent of aging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development of silver towns is considered in this research. The contents which are dealt with in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ocial phenomenon of aging of the population brings about new administrative needs in association therewith. Second, among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welfare for the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which are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social status quo are considered. Subsequently, related with residential facilities for elderly person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a silver town which brings about much interest from many people are alluded to. Third, as the needs for silver towns are steadily increasing,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silver towns in Korea and explores the role of a local government to satisfy such needs in terms of welfare for the elderly.

I. 서론

우리 나라는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보건 위생의 개선으로 유아와 노인의 사망률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더불어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상승하여 1990년 5.1%, 2000년 7.1%, 2010년 9.9%, 그리고 2020년에는 14.3%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2030년에는 그 비율이 19.3%가 되어 국민 5명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노년학회 편, 2000: 38). 이처럼 우리 나라도 고령화사회¹⁾에 진입하였다고 하겠다.

노인인구는 일단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간에 부양 계층의 부담이 확대되어 부양 계층의 생산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노년 부양비는 10.0으로 생산 활동 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그 비율이 20.8로 늘어나 4.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부양, 보건 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 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한국노년학회 편, 2000: 109-110).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21세기를 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전체사회계획 가운데

1) UN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는 114년, 스웨덴은 85년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2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JARC, 1998; 한국노년학회편, 2000: 39).

노인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산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적 재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노인부양문제,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고독감 문제 등 노인문제는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구성형태로 인해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노인주거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핵가족화 현상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접목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개발 중 실버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은 이와 관련된 새로운 행정수요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도래와 함께 제기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노인복지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 사회현상과 가장 밀접하게 접목되는 노인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주거시설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실버타운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셋째,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 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수요를 노인복지차원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고령화 사회와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사회도래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증대를 중심으로-)

주거공간은 일반성인 가족보다 노인가구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사람은 노화할수록 생활영역이 축소되기 마련이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들에게 주택은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 중 주거 문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이연숙외, 1999). 이처럼 주거문제는 노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핵가족화 현상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지배적인 현상이었으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자녀세대들이 도시로 이주해감으로써 핵가족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의 진행은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인 즉, 가족복지의 제1차 책임이 가정에서 점차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 주택의 대부분은 이러한 핵가족만을 위해 계획되었기 때문에 노부모와 함께 3세대가 한 집에 살 경우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가족간의 심한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은 자녀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부모세대에서도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의식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연숙(1991)의 실증적 연구결과와 최성재(1997)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준다. 이연숙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노부모를 모셔야 할 떠느리는 현재 동거 가족의 경우 10명 중 9명이 따로 살기를 원하는 반면, 노인은 10명 중 7명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6년 후인 1996년에 이루어진 최성재의 연구결과²⁾에 의하면 노인들의 경우 역시 자식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하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실버계층이 될 성인남녀의 의식조사 결과를 볼 때, 73%가 노후에 자식과 동거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자식의 부양에 의존하려는 노인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부양 기능을 대신할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문제 중 노인주거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 정부나 사회가 노인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인 삶의 공간 확보에 있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02년을 기점으로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9%인 3백77만 명(통계청, 2002)으로 국제연합이 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는 이미 2000년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3백만 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비해, 노인 주거 시설 수용 인원은 1만 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한국노년학회, 2000: 188). 또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을 보더라도 정부의 노력이 매우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빈곤확률이 높고 생활비는 물론 주거비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로 배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공급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이 외에는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공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조선호, 2000: 7). 노인주거시설과 관련한 수요증현상에 대해 정부에게 모든 역할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이다. 국가의 재정이나 자선에 의한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다양한 욕구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³⁾이므로 민간참여의 확대를 통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방향잡이 역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간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주거시설의 한 형태인 실버타운조성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정책의 역할분담자로서 민간참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실버타운의 개념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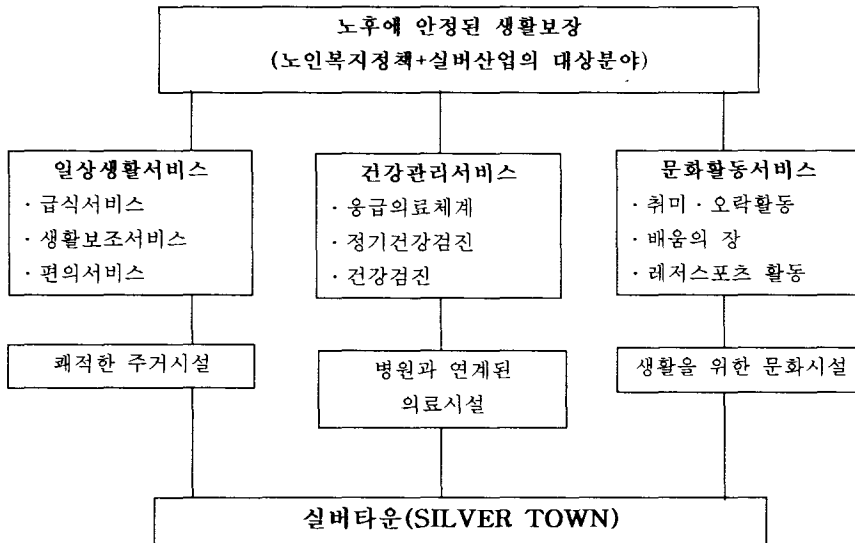
1) 실버타운의 개념

실버타운은 기존의 유료양로원과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문화활동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인전용의 복합시설단지를 말한다(한국토지개발공사, 1995:63).

2) 노후자녀와 동거희망여부 결과를 세대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대의 경우 동거하고 싶다 24.4%, 별거하고 싶다 75.6%, 30대의 경우 동거하고 싶다 29.1%, 별거하고 싶다 70.9%, 40대의 경우 동거하고 싶다 24.9%, 별거하고 싶다 75.1%, 50대의 경우 동거하고 싶다 34.2%, 별거하고 싶다 65.8%의 결과를 보인다.

3) 우리 나라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9년 69억 원이었던 노인복지예산은 1999년에는 1,917억원으로 약 28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89년에는 10.5%였으나, 1999년에는 35.9%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10).

<표 1> 실버타운의 개념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1995), "실버타운개발에 관한 연구," 63쪽 참고.

실버타운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또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실버타운을 정의하는 경우, 첫째, 60세 이상의 건강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가진 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둘째, 주거시설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주거, 의료, 휴양 등 복합기능을 가지며, 셋째, 물리적인 시설계획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노인주거단지이다(한희경, 1997:8). 유료양로시설은 실버타운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협의의 실버타운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협의의 실버타운인 유료 양로시설은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입소 대상자의 연령을 60세 이하로 낮추고 입소 고령층의 건강 쇠락에 대비하여 보호서비스 기능도 갖추면서 주거 편의 쿠대시설 등도 갖춘 노인전용주거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선희, 2000: 15).

우리 나라에서는 협의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료노인시설을 가르켜 실버타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버타운의 기능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 각종 서비스 제공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주거단지이며, 우리가 알고있는 양로원과 요양원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다. 먼저, 실버타운은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달리 유료 시설이라는 점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국공립의 사회단체 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입주자들이 낸 입주금만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입주자들도 저소득층이 아닌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노인들이 대다수이다. 둘째, 실버타운은 복합주거단지이다. 기존의 유료양로원과 같은 단순 주거기능위주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의료시설과 각종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의 2차적 욕구까지도 충족시키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고 하겠다.

2) 실버타운의 필요성

지난 40여년 동안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생활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복잡한 노인문제를 가져 왔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퇴행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 및 간병문제,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 저하, 사회 부양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미흡 등으로 수많은 노인들이 가난, 질병, 고독, 무위·가운데 살아가고 있다(최순남, 1999). 이처럼 사회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시설의 수요를 낳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버타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산업화 · 도시화 현상

우리 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왔다. 산업화 현상은 자연발생적으로 경제활동인구들이 '도시'라는 공간으로 모여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산업화·도시화 현상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무너뜨리고 핵가족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산업사회의 기술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요보호 대상 노인을 증가시켜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2) 가치관의 변화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가족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당연지사라 받아들여졌던 전통적인 가족구성태에서 부득이하게 노인부양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남으로서 노인의 주거문제가 제기되는 반면 여건만 된다면 자식이 있는 가정을 떠나 그들만의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자녀들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부모들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나 육아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경우 자녀와 떨어져 살기를 바라는 노인들이 많다.

(3)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약화

실버타운 입소자의 경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료시설일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버타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심신 기능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139만 명의 노인 중에서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원에 입소하여 수용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약 6천9백명 정도이다. 기능 장애를 가진 노인의 절대 다수(99.5%)는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조사(정경희 외, 1998)에 의하면,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중에서 가족들의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장애 노인의 37.3% 정도이고, 나머지 62.8%는 필요한 도움을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혼자 사는 노인의

88%가, 그리고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의 57%가 신체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의 간호·수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54% 이상이 자녀로부터 수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한국노년학회 편, 2000: 427).

(4)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0년에는 28.3%에서 1994년에는 38.2%로 꾸준히 증가함으로 인해 비교적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이 많다. 예비노인계층은 노후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계층은 보다 안정된 경제력을 가질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들은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시설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 주거 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실태를 보면, 1999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213개의 노인복지시설에 12, 351명(전체 노인의 0.38%)의 노인들이 입소되어 있다. 이는 서방국가의 시설 노인 비율(전체 노인의 4-7%)에 비교하면 아주 낮은 편이다. 이처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가고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들에게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이 가장 저조한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들의 경제력이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실버타운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III. 우리 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1. 실버타운의 현황

실버타운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률용어는 아니나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 중 협의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유료노인시설을 가르켜 실버타운이라고 부른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원,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휴양소가 실버타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001년 9월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유료 노인복지 수용시설은 30여 곳에 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2003년 9월 현재 실버타운의 개념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4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시설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자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시설수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용과 시설은 <표 2>에서 보여 주듯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증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월 생활비는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 입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퇴소시 보증금을 돌려 받는 곳이 보통인데 최근에는 아예 등기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곳도 있다.

<표 2>에서 살펴본 실버타운 중 몇 개소 만 구체적으로 그 운영실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실버타운으로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삼성노블카운티를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유료양로시설로서 1988년에 7월에 사회복지법인 제성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수원시에 설비되어 운영 중인 유당마을 등이 있다.

1) 삼성 노블카운티

삼성노블카운티는 2001년 5월 9일 일자로 개원한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유료시설로 비용이 가장 비싸다. 지상 20층, 지하 3층의 2개동으로 총 55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대면적은 30, 36, 46, 50, 56, 72 평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주 자격은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 가능하고, 부부입주의 경우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입주보증금은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클리닉, 생활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 이용에 대하여 납부하는 보증금 성격이며,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증금식과 상각식이 있다. 보증금식은 입주비의 원금을 퇴소시 전액 반환하는 방식이며 상각식은 입주비의 50%는 퇴소시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거주기간에 공제하는 방식(10년)이 있다. 월 생활비는 주거서비스비(문화스포츠시설 이용료 포함), 시설관리비, 식비, 세대수도광열비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며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된다. 2003년 3월 기준으로 평형별 입주보증금 및 월생활비를 살펴보면, 30평의 경우 1인 기준시, 보증금 2억 9000만원에 월생활비 123만원, 2인 기준 시에는 3억5800만원에 월생활비 209만원, 36평 1인 기준시, 보증금 2억 9000만원에서 4억 4500만원에 월생활비가 133만원, 2인 기준시에는 3억5800만원에서 5억1500만원이며 월생활비는 219만원, 46평의 경우 1인 기준시, 보증금 4억 8000만원에서 6억 300만원이며 월생활비는 154만원, 2인 기준 시에는 5억5000만원에서 6억7300만원에 월생활비 240만원 정도이다.

2) 서울 시니어스타워

서울시니어스타워는 1998년 9월에 서울 중구 신당3동에 설립된 시설이다. 지상 14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3,140평 규모의 도심형 노인주거시설이다. 임대면적은 15평형 68세대, 23평형 40세대, 30평형 36세대 등으로 15평과 30평은 A, B, C type, 23평형은 A, B, C, D type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형별로 입주보조금과 생활보조금이 다르다.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15평형 Atype의 경우 입주보증금 6천950만원에 생활보조금 6천950만원을 합친 1억3천900만원을 입주시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입주보증금의 경우에는 퇴소시 100% 반환하는 방식이고 생활운영보조금은 15년간균등상각방식을 취하고 있다. 23평형 Atype의 경우 입주보증금 1억545만원에 생활운영보조금 1억545만원을 합친 2억1천900만원을 지불하고, 30평형 Atype의 경우 입주보증금 1억3천900만원에 생활운영보조금 1억3천900만원을 합친 2억7800만원을 입주시에 지불해야 한다. 월생활비는 평형에 관계없이 1인 거주시 369,600원이고, 2인 거주시에는 739,200원이다. 다만 전기료, TV 및 CATV 시청료는 별도 계산한다. 2003년 9월 현재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분점으로 강서타워와 분당타워의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3) 유당마을

우리나라 최초 유료 양로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대상에 의해서 1988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대지 4,159평에 연건축 면적 1,502평의 지상2층과 지하 1층의 초현대식 건물에 50여개의 객실수와 수용정원은 88명이다. 1층에는 사무실과 주요 부대시설들이 있다.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실, 사우나, 이·미용실, 헬스실, 강의실, 독서실, 요양실, 오락실,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탁구장, 식당 등이 있으며 2층에는 50개의 객실과 휴게실 등이 있고 각방에는 화장실, 욕실, 옷장, TV 등이 구비되어 있다. 직원으로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 의사, 영양사 등 18명의 직원이 식사와 간호, 교통, 취미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소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분 및 노인부부로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으로서 반드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입소가 가능하나 응급, 비상 또는 퇴소시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보증인(자녀)이 직접 내원하여 입소를 결정해야 한다.

입소 보증금은 평형에 따라 3,300만원에서 6,600만원까지이며 월생활비는 70만원 정도이다. 입소 후 노인들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생활하게 되며 생리잔치, 각종 절기 행사, 송년잔치 등 각종 행사와 건강체조, 쇼핑, 노래모임, 영화감상, 국악교실, 율동 및 바둑·장기 등 오락과 원예, 서예 등 여가생활 등을 한다. 유당마을의 입소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로서 고중 또는 대졸 등이며 퇴직 전 직업은 주로 교사,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이다. 생활비는 연금, 임대업 또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 노인으로서 생활 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요양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도중에 병이 들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은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김규현, 1998:33).

<표 2> 우리 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이름	지역	위치	보증금				생활비		
			구분	입주보증금	생활 운영 보조금	합계			
서울시니어타워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97	15 평형	Atype	6천950만원	6천950만원	1억3900만원	1인 거주시 369,600원 (전기료, TV 및 CATV 시청료 별도)	
				Btype	6천875만원	6천875만원	1억3750만원		
				Ctype	6천800만원	6천800만원	1억3650만원		
			23 평형	Atype	1억545만원	1억545만원	2억1090만원		2인 거주시 739,200원 (전기료, TV 및 CATV 시청료 별도)
				Btype	1억430만원	1억430만원	2억860만원		
				Ctype	1억315만원	1억315만원	2억630만원		
			Dtype	1억200만원	1억200만원	2억400만원			
			30 평형	Atype	1억3900만원	1억3900만원	2억7800만원		
				Btype	1억3750만원	1억3750만원	2억7500만원		
				Ctype	1억3600만원	1억3600만원	2억7200만원		
			삼성노블카운티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467	구분	1인용	2인용	
						ALU	2억9000 만원	3억5800만원	
36평형	2억9000만원-4억4500만원					3억5800만원-5억1500만원			
46평형	4억8000만원-6억300만원					5억5000만원-6억7300만원			
50평형	5억-5억 4000만원					5억7000만원-6억1000만원			
56평형	5억7500만원-6억4000만원					6억4500만원-7억1100만원			
72평형	5억7600만원-9억2800만원					6억4600만원-9억9800만원			
생활비	123만원-189만원					209만원-275만원			
골든벨리	경기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완대리 산 130-1	싱글룸 14평 9000만원	30만원					
			더블룸 25평 1억4000만원	30만원					
			로얄룸 28평 1억5000만원	30만원					
			스위트룸 43평 2억 1000만원	30만원					
신라실버텔	경기도	경기도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314-8번지	평형	구분	보증금	월생 활비			
			11평	개인	6600만원	39만원			
				부부	6400만원	70만원			
			16평	개인	8600만원	39만원			
				부부	1억400만원	70만원			
			21평	개인	1억600만원	39만원			
				부부	1억2400만원	70만원			
			22평	부부	1억2400만원	70만원			
31평	부부	1억6400만원	70만원						

이름	지역	위치	보증금	월생활비		
라비돌	경기도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 9-10	2억 5000만원	30만원		
로댐실버텔	경기도	경기도 오산시 서동 492번지	1인실 5평 3000만원 2인실9.5평 6000만원	37만원 74만원		
설악실버타운	경기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239-1	-	-		
성광원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15-4	2500만원	50만원		
성라실버타운	경기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	5000만원	50만원		
신성수양관	경기도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수양리 544-1	1인실2인실 공동 1500만원 부부 3000만원	1인실 40만원 2인실 35만원 부부 70만원		
안식관	경기도	경기도 양평군 봉문면 마룡리 496	500만원-1000만원	무료		
유당마을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2	3300-6600만원	70만원		
미리내실버타운	경기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 82	1억1000만원	35만원-40만원		
경남시니어타운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		
일산실버타운	경기도	경기도 일산시 장항동 865	-	-		
충효의 집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3000만원-7000만원	80만원-92만원		
인천실버타운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 251-9	15평 5000만원 20평 7000만원 30평 1억원	1인 70만원 1인 70만원 부부 130만원		
푸른마을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310	300만원	90-100만원		
작은효도원	강원도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500만원	40-80만원		
춘천 사랑의 집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8	-	-		
보리수마을	강원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산 36번지	7000만원	평생생활비 4000만원		
일봉복지관	충북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459번지	3500만원	없음		
부여 황토방 효도타운	충남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307-3	구분	분양가격	관리비(1인 기준)	
			23평	A실	1900만원	월5만원
				B실	1400만원	
				C실	1400만원	
			32평	A실	2300만원	월6만원
				B실	1800만원	
				C실	1800만원	
			37평	A실	2300만원	월6만원
				B실	1800만원	
C실	1800만원					
			D실	1400만원		

이름	지역	위치	보증금	월생활비	
따뜻한 집	충남	충남 홍성군 황동면 금당리 30-4	500만원(4인 1실) 1500만원(2인 1실)	50만원	
가나안 노인의 집	충남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21-8	1인 1500만원 부부 2000만원	50만원/인	
공무원로원	충남	충남 공주시 금홍동 산 16-5	-	-	
내일은 푸른하늘	충남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봉리 811-2	-	-	
노아의 집	충남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026-1	500만원(2인실 혹은 3인실 방만 있음, 개인인 경우 1인실은 운영 안됨)	30만원	
해인사실버타운	경남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41	현납형	15평1인9000만원 15평부부12,500 만원 32평15,500만원	-
			중신형	15평3,000만원 32평5,000만원	15평 1인 6,000만원 15평 부부 9,000만원 32평 16,000만원
			전세형	15평6,000만원	15평 1인 60만원 15평 부부 100만원 32평 110만원
혜성복지원	경남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감 510	1인 1250만원 2인 2000만원	1인 35만원 2인 58만원	
일봉실버타운	경남	경남 의령군 궁곡면 평촌리 175	중신형	8평 1인 5,000만원 8평 부부 8,000만원 13평 1인 6,000만원 13평 부부 9,000만원	-
			월세	8평 1인 1,000만원 8평 부부 1,000만원 13평 1인 2,000만원 13평 부부 2,000만원	8평 1인 50만원 8평 부부 80만원 13평 1인 60만원 13평 부부 90만원
가야산실버홈	경남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52	6950만원	50만원	

2. 문제점

이상에서 우리 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이 실버타운의 개념에 해당하는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도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실버타운의 고객계층을 보면 주로 중상류층 이상의 노인들이다. <표 2>에서 보듯이 대체로 실버타운의 경우 개인의 비용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 한해서 이용 가능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주거시설 이용이 절실한 노인계층은 저소득층의 노인들이다. 스스로의 자립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제적인 여건에 보살펴 줄 자식마저 없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전혀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시설공급증대에 대한 노력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노인들의 주 생활공간이 가정이 된다. 그러나 요즘 가족 구성형태가 핵가족화 현상임을 감안할 때,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의료시설, 문화공간을 두루 갖춘 노인들의 생활공간의 확보가 노인복지 과제 중에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양로원의 경우 민간업체에 의해 건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비교하면 주거환경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안전과 보건, 위생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주거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주거시설건립과 관련된 법적·제도적인 측면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금까지 건립된 실버타운의 경우 주로 위치가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도시 외곽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공기가 좋고 복잡하거나 소음공해가 없어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나 가족들이 오고감에 있어 너무 거리비용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녀들의 노인 부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주거시설기능과 가족기능의 양자 모두를 충족시키려면 도시 지역내에 이러한 시설의 건립이 요구된다. 도시외곽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내에 시설부지를 마련할 경우 시설건립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시설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운영자에게는 적자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므로 인해 고소득층이 아니고는 시설이용이 어렵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집중된다.

IV.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 급격한 사회변동, 주거 및 지역환경변화로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에서 불안정하게 지내는 현실을 어떻게 극

복해 나가야 하는지는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는 부모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일수록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조창현의 공저, 1996:82).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볼 때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해야 할 일로 간주되었지만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현대의 가족구성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노인문제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문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관련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된 정책, 제도가 초보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주거안정정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므로 인해 주 생활공간이 가정이고, 노인에게 있어 주거안정을 통한 안락한 생활공간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시설 중에서도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수요증가현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실버타운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주거시설 공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에 있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는 것도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복지수요에 공급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정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경쟁체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과 양의 변화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적어 불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참여의 정당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공공부문인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민간부문의 참여는 영리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서비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실버사업은 영리적 성격과 사회복지적 성격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영리적 성격과 사회복지적 성격 중 영리추구의 목적에 보다 더 비중을 둠으로 인해 서비스 수혜대상자가 한정된 계층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노인주거시설개발의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타운의 조성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버타운의 입소조건이나 입소대상자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한해 입소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기된다. 즉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J.Tobin, 1970).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정부에 의한 공적부조 제도를 확대하여 공급하고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타운의 공급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타운의 공급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의 미흡한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민간부문에서 그 역할분담을 제대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즉 실버타운 건립·

운영과정상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실버타운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1997년 1월에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유료노인시설 융자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1,000억원을 마련하여 유료양로원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시설당 5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자율은 8.0%이고 건축비는 10년 분할 상환에 장비비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또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인·허가 보증보험제도의 완화를 들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보증보험가입을 면제하고 기업, 개인, 비영리법인이 10인 미만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2/3가 동의하는 경우 가입을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액은 과거에는 입소보증금합계액의 80%였지만 50%로 완화하였다.

◦ 상의 정부 개선책을 보면 여전히 정부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주택관련 복지정책을 보면, 노인이 자가 소유의 노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자금을 최대한 100%까지 융자해 준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노인전용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설치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의 저리융자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 비영리 등의 민간단체가 저소득층 입주용의 노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40년간 기한으로 건축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제도 등 지원정책은 다양하다(조선희, 2000:70-71).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노인주거시설 건립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버타운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 제시에서 실버타운이 주로 건립되는 지역이 도시 외곽지역임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규상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내에 실버타운이 설치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건립되어 운영중인 실버타운의 위치를 보면 대체로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시설부지 확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개발공사나 한국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택지 용도의 경우에도 일반주택건설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의 건축은 허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민간부문이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 정부소유의 땅을 거의 무상으로 불하해주거나 민간업자들이 쉽게 은행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김응규, 2000:34)을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도 민간기업의 실버주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행정규제의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노력은 '200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활동이 증

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시책은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패턴 정립, 저소득층 노인 생활안정기반조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마련, 보건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도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노인주거시설의 확충을 통한 생활안정을 찾는 데 있다. 한국 노인의 삶연구(김익기외 : 1999)에 의하면 1997년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42.8%에 이르며 노인문제 연구소가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2005년에 약 75%를 예상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가족적 삶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개인화의 추세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더 이상 노인문제는 개인적 및 가족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한국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인구 14%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적인 준비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 문헌>

1. 김규현(1998), 한국의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김용규(2000), 한국실버산업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3. 유성호·모선희·김형수·윤경아(2000), 노인복지론,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4. 이가옥(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서울 : 나남출판사.
5. 이연숙 외 6인(1999), 한국노인의 삶, 미래인력연구센터.
6. 이인수(1995),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7. 이창숙(2000), 우리나라 실버산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조선희(2000), 한국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정부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조창현(1996), 지방자치의 21세기 보인다, 서울 : 보림.
10. 최성재(1998), 고령화사회의 노인시설 유형과 전망, 건축, 9802호.
11. 최순남(1999),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12. 한국노년학회 편(2000), 노년학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13. 한희경(1997), “실버타운의 입지별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한국경제신문, 2003. 9.24.
15. 조선일보, 2003. 9. 23.
16. 중앙일보, 2003. 9.23.
17. Robert Moriss(1982), “Government and Voluntary Agency Relationships,” Social Service Review, vol. 56.

4) 2003년 9월 23일 정부는 2004년 예산안을 확정하여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3년에 대비하여 2004년 예산안을 보면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2조1600억원으로 2003년 예산안에 비해 9.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경제, 2003. 9.24).

18. S.Rhoads.(1985), *The Economist's View of the Worl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Sheila B. Kamerman(1983), "The New Mixed Economy of Welfare : Public and Private," *Social Work*.
20. J. Tobin(1970), "On Limiting the Domain of Inequali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JARC(Japan Aging Research Center)(1998), *Aging in Japan*
22. <http://healthguide.kihasa.re.kr/kor/statistics/sts.html>
23. <http://silver.changwon.go.kr/life/101-03.html>
24. www.koreapeople.co.kr
25. www.mohw.go.kr/databank/s951.html
26. www.welfare.or.kr